

Global regulators close to final deal on bank capital - sources

Huw Jones



사진 : 유럽 중앙 은행 상징물

배경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은행 규제를 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금융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은 바젤 III (Basel III) 규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로이터스 뉴스 기사는 현 협의 과정 단계와 규제 방향을 요약한다.

LONDON (Reuters) -Global banking regulators are close to a final deal on capital rules that aim to ensure banks can withstand financial shocks, wi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t to compromise on a major sticking point, banking and regulatory sources said on Tuesday.

Completion of these regulations, known as Basel III, would mark a pause in a near decade long effort by global regulators to put banks on a sounder footing after many were bailed out by taxpayers in the 2007-2009 financial crisis.

The struggle to finalize Basel III is a symptom of regulatory fatigue which has set in now that governments are focusing more on economic growth and are wary of burdening banks with ever more stringent capital requirement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disagreed over the extent to which banks can use their own risk models to calculate their capital requirements.

Members of a committee which oversees the Basel rules will be in Washington this weekend to atte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meetings.

“The committee has made progress on a compromise solution - although discussion is still ongoing -that would avoid an excessive impact and too long a transition,” one regulatory source said.

런던(로이터스 통신사)- 국제 금융규제자들은 현존 하는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쇼크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자본비율 설정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에 타협 결과가 벤치마크 자본비율 설정이 될 것 같다고 관련된 정보원들이 보고했다.

이 규정들은 바젤 III, 은행자본 건전화 방안으로 정리되었으며, 바젤 규제 기관은 금융규제를 통해 건강한 은행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던 10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전이다.

최종 바젤III 규제를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정부와 유럽연합 산하에 있는 정부들은 경제성장을 신경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자본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현재 은행들이 자기자본금액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계산방식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충돌의 해결이 필요한 상태다.

바젤 위원회 회원들은 이번주 주말에 워싱턴에서 국제 통화기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바젤 위원회는 현재 타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대화는 아직 오가고 있다. [규제 때문에 의한] 과도한 영향이나 [바젤 III] 도입 부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라고 관련된 규제 위원이 얘기했다.
